

화엄사상으로 '신과학' 화두 쏜다

물리학자 프리츨프 카프라(1939~)는 인간과 자연, 주관과 객관, 부분과 전체, 물질과 정신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동양의 유기적 세계관이 현대물리학의 이론과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특히 화엄사상에 바탕을 둔 그의 불교관은 현대물리학의 한계를 극복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최근 발간된 카프라의 저서 <생명의 그물>(김용정·김동광 역, 법암사 출판부)은 전체론적 패러다임과 시스템적 사고, 혼돈속의 질서, 생명의 자기조직화과정, 복잡성과 생명 등 현대과학의 화두를 불교사상을 통해 접목하고 있다.

이같은 접근의 바탕은 생명이 하나의 시스템이며, 우주도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관점에 있다. 그리고 생물 시스템은 그 구성성분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다른 구성 성분들에 의해 변형되고 대체되는 다중적으로 상호 연결된 연결망, 즉 생명의 그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같은 논지는 심층 생태학에 이어 시스템이론과 마음의 논리, 자기조직화의 모형들, 생

카프라 '생명의 그물' 등 5권 완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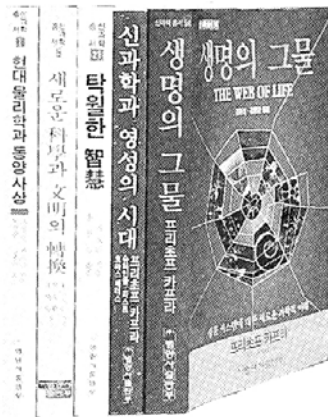
"생물시스템 구성성분 끊임없이 변화하고 다중적 연결망 갖춘 생명의 그물"

명의 전개 및 세계의 탄생 등 총 12장으로 구성된 이 책 전반에 나타나고 있다. 카프라는 여기에 생물학적·사회적 행위의 역사와 때론 불 수 없음을 깨닫는 것, 즉 '무엇 함이 곧 알아야, 알아 곧 함이다'라는 산티아고와 그의 중심인물인 마루나와 바벨라의 인지이론을 도입하고 이들의 이론이 모든 고정된 형상이 환영에 불과하며 분리된 자아의 개념에 집착하게 되면 다른 고정된 사고 범주에 대한 고착에서 발생하는 것과 똑같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된다는 불교사상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카프라는 우리의 완전한 인간

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체 생명의 그물과의 연결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불교만이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카프라의 불교관은 1975년 나온 첫번째 저서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에서도 명확히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그는 불교의 화엄사상과 소립자 물리학과 상호작용 관계를 화엄의 사사무에(事事無礙) 세계관으로 설명했다.

또 두번째 저서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에서는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접합론을 펼치고 있으며, 88년 작품인 <탈출한 지혜>에서는 양자 물리학자 제프리 추의 '구두끈 가설'(사물은 상호 일관성 있는 관계를 통해서 존재한다는 이론으로, 어느 부분도 다른 부분보다 기본적일 수 없는 상관을 가진 동적인 거미줄로 자연을 이해하려는 접근방법)이 불교사상과 전적으로 일



치하고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신학과 종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장하는 두 신부와의 대화록인 <신과학과 영성의 시대>에서도 카프라는 불교의 정신세계가 자신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밝히고 있다.

한명우 기자

프리츨프 카프라는 누구

동양적 숲- 세계관으로 현대물리학의 한계 극복

오스트리아 태생의 물리학자로서 '신과학'의 대표적 인물. 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으로 대표되는 현대물리학을 불교, 도교, 한두교 등 동양사상으로 접근하고 이론적으로 해명해냈다. 카프라는 미국의 물리학 잡지에 여러 차례 현대 소립자 물리학과 동양철학의 비교 논문을 발표한 바 있으며, 또한 로스앤젤레스 선센터에서 직접 선을 공부하기도 했다.



카프라의 사상은 한마디로 현대문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뉴턴의 고전물리학에 입각한 기계론, 결정론, 환원주의적 패러다임으로부터 유기체적, 시스템적, 전체론적, 생태학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여기에 과학이 동양의 종교나 내지 철학의 사유방법과 유사한 일면을 띠고 있으며 인류의 우주관과 세계관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인식도 깔려있다. 동양철학적 사고관을 지니고 있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불교사상에 더욱 근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학강의 현각스님 지음

신심명등 선종4부록 일화 소개



흔히 선사들의 감칠맛나는 문자의 범법을 느끼려면 <선종 4부록>에 빠져 보라고 한다. 무량겁을 넘나드는 대자유와 해탈이 깃들어 있고, 세계가 밀한 다 해도 넘쳐나고 한가로운 기상이 넘쳐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신심명·증도가·심우도·좌선의 등 <선종 4부록>을 일화 등을 소개하며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또 계승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해설과 함께 어려운 한자에 대한 풀이도 있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좌선' 마지막 부분에는 "이 글을 부지런히 익히면 너 나 할 것 없이 다 깨치게 되리라"는 구절이 있다. 인내심으로 읽고 참구하면 불법의 심오함을 맛볼 수 있다고 현각스님은 얘기한다. (불일 5천원)

화제의 책

초발심자경문 강의 무관스님 지음

초발심자의 마음가짐·생활규범 답아



보조스님의 저술인 <계초심학인문>과 원효스님의 저술 <발심수행장>, 아운스님의 저술 <자경문>을 함께 한 권으로 엮은 이 책은 불교에 처음 입문한 사람이나 스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녀에 할 마음가짐과 생활규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세상의 갖가지 욕망에 탐착하지 말고 마음을 분발하여 하루 속히 깨달음에 이르러는 옛 선지식들의 교훈이 스며들었다.

'부처님의 말씀을 따를 것' '윤회의 원인' 등 각 주제마다 한문 원문과 번역 그리고 자세한 해설을 실었다. 행자교육과 강연에서 직접 강의해 온 것을 토대로 한 무관스님의 강설은 이해와 깊이를 더해준다. (민족사 6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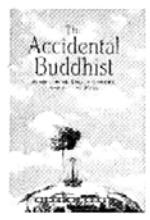
책방 역사인물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생활속의 불발수행	현대불교인문부	역사인문
2	불교입문	조계종연구원	조계종출판사
3	성지와 범부 함께 읽는 금강경	윤을순	신우당
4	생활속의 기도법	일타	효림
5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가지	성우·지현	민족사
6	마음 알기 다루기 나누기	용타	대원정사
7	수행으로 가는 길	이제열	대원정사
8	알기쉬운 불교미술	김영래	반출판사
9	불보살 명호이야기	이운수	민족사
10	무소유	법정	법우사

구입문의: (02)737-0695

해·외·신·간

우연히 불자가 되다



<우연히 불자가 되다(The Accidental Buddhist: Mindfulness, Enlightenment, and Sitting Still)>는 아시아 전통 종교인 불교가 90년대부터 미국문화에서 주류 문화로 발돋움하게 된 이유를 고찰한 단티 W. 무어(美 펜 스테이트대) 교수의 학술 연구서.

무어교수는 이 책에서 "70년대 초반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중국·일본·티벳·베트남인들의 불교는 90년대에 이르러 이들 이민세대의 특정한 경제적 기반을 토대로 미국문화의 중심으로 등장했다"며 "미국인들은 티벳 범부 달라이 라마를 자신들의 동반자라고 믿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美 알렌서적 256 pp. ISBN 1-56512-142-2)

티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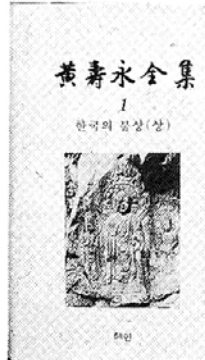
<티벳(Tibet)>은 티벳의 웅장하고 초자연적인 경관과 티벳이 많은 사람들, 종교, 문화 등을 생생하게 담은 가츠요시 노마치의 사진집. 이 사진집에는 △아르카족과 해골로 만든 만다라 △조각사원 △세라사 뒤 언덕의 화려한 마에불 △콜라 칸리산의 만년설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포탈라궁 △라사카강변에서 빨래하는 여인 등 2백여점이 수록되어 있다.

노마치씨는 일본사건학회와 국립출판사진작가협회의 상을 수상했던 일본의 저명한 사진작가. 사진에 세이는 미 콜럼비아대학에서 인도-티벳학을 가르치고 있는 로버트 트루만교수가 썼다. (美 삼발라 198 pp. ISBN 1-57062-256-6)

'한국의 불상' 출간

황수영박사 전집 첫째권

금동불관련 저서·논문등 모아



우리나라 불상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한국의 불상(상)>(도서출판 해안)이 나왔다. 한국미술사학회의 태두 조우 황수영박사의 전집 제1권인 이 책은 반가사유상을 제외한 금동불 등에 관해 저자가 그동안 발표한 저서와 논문, 강연문 등을 한데 모은 것이다.

'한국 불상의 연구' '한국불상의 시대적

특징' '삼국·통일신라·고려시대의 불상' '사(寺)·사지(寺址)' 등 4부로 구성돼 있으며, 유점사 33불 등 저자가 소장하고 있던 자료들을 포함한 회귀하고 소중한 2백여 점의 유물이 도면 및 사진자료와 함께 실려 있어 이해를 돕고 있다.

더욱이 현장을 직접 방문 하며 수많은 유물을 찾아내 박물관으로 옮겨지기까지의 모습을 담은 논문들은 문화재 자체의 유래와 조성 배경에 대한 관심이 양식(樣式)에만 치중하는 최근 한국미술사의 학문 연구 풍토에 신선한 자극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황수영 박사는 이 책에 이어 <한국의 불상(하)> <한국의 불교 공예·탐미> <금석유물> <인도일기> 등을 순차적으로 펴낼 예정이다.

백제문화 총정리 '백제를 다시본다'

최몽룡·홍윤식교수 등 20명 불교·공예·민속등 연구분석

<백제를 다시본다>(도서출판 주류성)는 불교문화의 중심으로 고고학, 공예, 민속, 언어에 이르기까지 백제문화 전체를 다루고 있다. 최몽룡 서울대 박물관장의 서문을 필두로 이기동·홍윤식교수(이상 동국대) 강우방(경주박물관) 장경호(경기도립박물관) 등 각분야 전문가 20명이 참여했다.

이 책은 '불교정토' 건설을 꿈꾼 백제인의 불교사상은 백제인들이 얼마나 불교적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백제인의 웃음으로 비유되는 충남 서

산 용현리의 마애삼존불(국보48호), 부여 정림사 절터에 남아있는 5층석탑의 단아함, 부여 능산리 고분군 절터에서 발굴된 소조 불두의 미소, 전북 익산지역에서 출토된 동관발에 새겨진 6래삼존상의 둥근 자태가 이를 증명한다. 또 동양최초의 걸작품으로 꼽히는 금동연화관만가사유상(국보83호)과 부여 정림사지 출토 납색세삼존불좌상 등은 백제인의 혼과 생명력이 들어있음을 느끼게 한다.

특히 백제금동대향로와 금동연화관 반가사유상의 컬러화보와 함께 중간중간 각종 유물에 대한 자료사진이 실려있어 이해를 돕고 있다. 1994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신문에 연재했던 '백제사를 다시본다'를 재구성했다.

'좋은 물음...' '죽음을...'

'정토문고' 시리즈 2·3권 나와

불교출판 연지문에서 <정토문고>시리즈 두번째와 세번째인 <좋은 물음·좋은 대답> <죽음을 준비합시다>가 나왔다.

<좋은 물음·좋은 대답>은 호주인 쉬리와스티 담미카 스님이 호주와 아시아 각국 대학강연에서 사람들이 궁금해 하던 것을 모아 정리한 책으로 현장스님이 우리 실정에 맞게 재구성했다. <죽음을 준비합시다>는 중국과 티벳의 불교사적 가운데 정토신앙의 왕생 해탈법과 밀교의 중음신(中陰神) 해탈법을 정리해 엮었으며, 참된 불교신앙과 해탈의 길을 찾는 불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듯.

연지문은 95년 지방보살을 통해 부모의 죄업을 씻고 어린 영혼들을 정토에서 태어나게 하는 자비의 가르침을 담은 <정토문고>시리즈 첫번째인 <장수법회경>을 펴낸 바 있다.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타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인 <기도>의 발간 이후, 독자들로부터 기도 방법을 묻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저는 현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옳은지요?"... 계속되는 독자들의 기도법에 관한 문의에 저자로서의 책임을 느낀 스님께서는 다시 집필을 시작, <생활 속의 기도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책 <생활 속의 기도법>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 할 때 지켜야 할 마음가짐까지, 세세한 일타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임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86 / 160면 / 값 3,500원

제1장 <기도 성취의 지름길> 제2장 <생활 속의 기도법> 제3장 <특별 기도 성취법> 제4장 <영가 천도 기도법>

생활 속의 기도법

"기도는 실천이지 이론이 아니다. 하지만 법에 맞지 않는 기도는 오히려 결실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 따라서 기도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성취 만큼이나 중요한 일인 것이다."

불교 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스님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의 체험담을 엮은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총 6장 52권의 다양한 이야기가 실린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I 나와 가족·제자의 기도 이야기 / II 기도는 깨달음의 지름길
III 업병도 불치병도 기도를 통하여 / IV 목숨을 구한 일타의 기도
V 생활 속의 기도의 득력(得力) / VI 기도인을 바꾼 길로

일타스님의 알기 쉬운 불교책

-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일타스님의 윤회와 인연 이야기 모음집 신국판 / 값 4,500원
-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일타스님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아운비구의 <자경문>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 신국판 / 값 5,000원
- 법공양문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신국판 / 값 5,000원
- 범망경보살계1~5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스님의 무애변(無礙辯)을 기록·편집한 책 신국판 / 1-5권 각권 값 6,000원
- 감로법문 듣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이 샘솟는 일타스님의 육상법문 테이프 테이프 5개 1세트 / 값 10,000원